

한일 궁중악무 연구

— 당악정재와 도가쿠(唐樂)의 잠재신앙을 중심으로—

박태규 _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주저자)

임미희 _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강사(교신저자)

목 차

- I. 들어가며
- II. 한국 당악정재와 도가쿠(唐樂)
- III. 당악정재와 도가쿠 속 잠재신앙
- IV. 당악정재와 도가쿠의 잠재신앙 발현 양상
- V. 나오며

국문초록

한국의 궁중악무 중 연향악은 크게 당악정재와 향악정재, 그리고 당악 형식을 차용한 정재로 나누어진다. 일본의 부가쿠(舞樂)는 도가쿠(唐樂)와 고마가쿠(高麗樂)로 구성되어 있다. 흥미로운 것은 한일의 궁중악무에 공통적으로 중국에서 전래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당악정재와 도가쿠에는 공통적으로 잠재신앙의 흔적이 남아 있다. 당악정재와 도가쿠에서 살필 수 있는 잠재신앙은 곡령신앙과 용신신앙, 그리고 불교 등이다. 먼저 곡령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은 당악정재의 오양선, 도가쿠의 소마쿠샤가 있다. 다음으로 용신신앙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는 포구락, 세이카이하와 아마가 있다. 마지막 불교는 연화대, 도가쿠의 만주라쿠, 가료빈이 있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잠재신앙은 당악정재의 경우 창사와 무구, 곡명으로, 도가쿠의 경우는 의상과 이칭으로 발현되고 있다. 궁중악무는 당대 최고의 예술로서 극도의 정제된 예술 세계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의 원초적 삶과 정서를 바탕으로 한 잠재적 신앙 체계가 자리하고 있다.

I. 들어가며

궁중악무는 왕실 의례와 연향에서 연행되던 악무로, 그 형식 속에는 단순한 예능을 넘어 정치적 질서, 제의적 성격, 그리고 각 사회가 공유하던 신앙적 상징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다. 한국의 정재, 일본의 부가쿠(舞樂), 중국 수·당 시기의 구부기(九部伎), 십부기(十部伎) 등은 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특히 정재와 부가쿠는 오늘날까지 실연되는 유일한 궁중 악무 체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의 정재는 크게 당악정재, 향악정재, 그리고 당악 형식을 차용한 정재로 나뉜다. 당악정재는 고려시대 중국에서 도입된 것으로 현선도를 포함해 다섯 종목이 전한다. 향악정재는 국내 창작물로서 신라의 처용무를 비롯해 지방에서 궁중으로 편입된 선유락, 향장무 등이 포함된다. 또한 몽금척, 수보록 등은 죽간자와 같은 당악적 형식을 차용해 구성된 정재에 해당한다.

일본의 부가쿠는 도가쿠(唐樂)¹⁾와 고마가쿠(高麗樂)로 이루어진다. 도가쿠는 중국 및 실크로드 남방계 문화 요소로 세분되며, 고마가쿠는 고구려·백제·신라·발해 등 한반도 및 북방계 악무 전통에 기반을 둔다. 이처럼 한·일 궁중악무에는 중국에서 전래된 요소가 공통적으로 존재하며, 이는 동아시아의 활발한 문화 교류와 수용·정착·변용 과정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성에도 불구하고 두 전통은 외래 요소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신앙적 상징, 의례성, 초월적 세계관 등이 형식 속에 은밀하게 남아 있다는 점에서

1) 한국의 당악과 구분하기 위해 일본의 경우 '도가쿠'로 표기하며, 인명·지명·악기명·작품명 등은 원음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도서명은 가독성을 위해 한자음으로 표기한다.

독자적인 전개 양상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잠재신앙(潛在信仰)’은 바로 이러한 현상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특정 형식 속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제의성, 길상, 축원 구조 등 신앙적 의미 체계가 잠재적 층위로 내면화되어 지속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신앙이 현재의 실천으로 표면화되어 나타나지 않더라도, 춤사위, 복식, 무구, 춤동작, 모티브, 연행 맥락과 같은 상징 요소를 통해 그 흔적이 드러나며, 이는 수행자의 몸짓과 공연 공간의 질서를 통하여 은연중에 재현된다.

본 연구는 한국의 당악정재와 일본의 도가쿠를 중심으로, 그 형식에 내재한 잠재신앙의 구조와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동아시아 궁중악무가 보존하고 있는 신앙적 기반을 재해석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는 한·일 궁중악무가 동아시아 문화교류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변용되었는지를 새롭게 조명하는 한편, 양국 궁중예술의 상징 및 신앙 기반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I. 한국 당악정재와 일본 도가쿠(唐樂)

한국의 당악정재는 『고려사 악지』는 물론, 『악학궤범』 및 『정재무도홀기』 등에 게재된 헌선도, 수연장, 오양선, 포구락, 연화대의 5종이다. 당악정재가 처음 기록된 것은 『고려사 악지』(권제25 악2)이다.

11월 신해(辛亥), 팔관회를 여니 국왕이 신봉루(神鳳樓)에 행차하여 음악을 관람하였는데, 교방(敎坊)의 여제자(女弟子) 초영(楚英)이 새로 전래한 「포구락(拋毬樂)」과 「구장기별기(九張機別伎)」를 연주하였다. 「포구락」은 제자가 13인이고 「구장기」는 제자가 10인이다. (문종 27년(1073), 음력 11월 12일)²⁾

2) 『高麗史樂志』:十一月辛亥, 設八關會, 御神鳳樓觀樂, 敎坊女弟子楚英, 奏新傳拋毬樂·九張機別伎, 拋毬樂, 弟子十三人, 九張機, 弟子十人.

이것에 의하면 팔관회 당시 교방의 여제자 초영이 포구락과 구장기별기 등을 공연하였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볼 때 당악정재 5종은 문종 27년을 전후해 고려에 전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악정재 5종에 관해 『성호사설』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성호사설』 제15권 「인사문(人事門)」³⁾

포구락

포구락은, 심존중(沈存中)의 『몽계필담(夢溪筆談)』에 “해주(海州) 선비 이 신언(李愼言)이 꿈 속에 어느 수궁(水宮)에 들어가 궁녀들이 포구(拋毬)하는 것을 구경하였고, 산양(山陽)사람 채순(蔡純)이 전기를 지어 그 사실을 소상히 서술하였으며, 포구곡 10여 곡까지 첨부되어 있다.” 했는데, 가사가 모두 청신(淸新)하였다. 내가 지금 두 곡을 기억하고 있다.⁴⁾

연화대

연화대란 놀이는 본주(本註)에 의하면 원래 탁발위(拓跋魏)에서 나왔는데, 두 여동에게 의복과 모자를 화려하게 차리되 모자에는 금방울을 달아서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게끔 하였다. 그 유래는 두 개의 연꽃 속에 두 여동을 숨겼다가 연꽃을 헤친 후에야 그 모습이 나타나게끔 되었으니, 이는 반드시 화신 답가(花神踏歌)의 유로 말미암아 생겨난 듯하다.⁵⁾

오양선

오양선은 당 나라 이군옥(李群玉)의 창포간 시(菖蒲澗詩)에 의거하면, 다섯 신선(五仙)이 다섯 염소(五羊) 타고(五仙騎五羊), 어느 시대에 이 시골 내려왔던고

-
- 3) 이하 『성호사설』의 원문 및 번역문은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2025.05.01>)에 의함.
- 4) 『星湖僊說』: 拋毬樂者據沈存中華談海州士人李愼言夢至一處水殿中觀宮女戲毬山陽蔡純爲之傳叙其事甚詳有拋毬曲十餘闋詞皆淸麗今記兩闋.
- 5) 『星湖僊說』: 蓮花臺者本註云本出於拓跋魏用二女童鮮衣帽帽施金鈴扑轉有聲其來也於二蓮花中藏之花坼而後見此必因花神踏歌之類而爲之也.

(何代降茲鄉) 하였고, 그 주는 『환우기(寰宇記)』를 인용했는데, ‘고고(高固)가 초(楚) 나라 상신(相臣)으로 있을 때, 다섯 신선이 다섯 색깔의 염소를 타고 와서 곡식 이삭을 고을 사람들에게 주었으므로, 그 고을을 오양성이라 했다.’고 하였다. 또 『남월지(南越志)』에 의하면, “창포간은 희안현(熙安縣)에 있으며, 요 성보(姚成甫)가 창포간에서 장인 하나를 만났는데, 그의 말에, ‘이 창포는 안기생(安期生)이 심은 것이다.’고 했다.” 하였다. 이 두 가지 말을 종합해보면, 오양성이란 희곡은 반드시 이를 가리킨 것이라 하겠다.⁶⁾

수연장

수연장은 어디에서 연유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고려 성종(成宗 982~997) 때 최승로는 부처를 받드는 잘못을 상소하여 논란하기를, “당 덕종비(唐德宗妃)의 아버지 왕경부(王景附)와 오고염(烏高恬) 등은 덕종의 수명 연장을 위하여 불상을 주조하여 올렸다.” 했으니, 그런 말이 아마 여기에서 원인이 된 듯하다.⁷⁾

헌선도

헌선도는 서왕모의 고사에서 나왔다. 여조(麗朝) 때에 최충현이 여러 기녀들을 시켜서 봉래 선녀가 임금에게 하례하는 형용을 지었으니, 그런 유래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⁸⁾

알려진 바와 같이 헌선도는 서왕모가 군왕을 축수하기 위해 선계에서 내려와 선도를 올리는 내용의 정재이다. 위의 인용에 의하면 헌선도는 서왕모 고사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하는데, 서왕모는 도교의 대표적인 여신으로 곤륜

6) 『星湖僊說』:五羊仙者據唐李羣玉菖蒲澗詩云五仙騎五羊何代降茲鄉註引寰宇記高固爲楚相有五仙人騎五色羊持穀穗遺州人因呼爲五羊城又南越志菖蒲澗在熙安縣姚成甫於澗測遇丈人曰此菖蒲安期生所種合而觀之五羊仙之戲必指此而云爾。
 7) 『星湖僊說』:壽延長者不知何自高麗成宗時崔承老疏論奉佛之失云唐德宗妃父王景附烏高恬等爲聖壽延長鑄佛像獻之云疑即因此而爲之也
 8) 『星湖僊說』:獻仙桃者出於王母事麗朝崔忠獻令羣妓作蓬萊仙娥來賀之狀不過因此類而起也.

산에 거하며 3천년에 한 번 열리는 반도(蟠桃)를 관장한다. 수연장은 상원에 장수와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술을 군왕에게 올린다는 내용이다. 『성호사설』에 의하면 그것의 연원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당나라 덕종 연간에 그의 수명 연장을 위하여 불상을 주조한 것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오양선은 다섯 마리의 양을 탄 신선이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에게 곡식을 전해준 고사를 모티브로, 군왕의 장수를 기원하는 것이다. 특히 『태평환우기(太平寰宇記)』에는 다섯 신성과 오색의 양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포구락은 포구문을 놓고 채구를 던져 넣어 승부를 가리는 유희적 성격의 춤이다. 흥미로운 것은 『몽계필담(夢溪筆談)』에 기록되어 있는 이신언의 꿈에 관한 내용인데, 그가 수궁에 들어간 만큼 구문에도 용의 문양이 들어가 있다. 연화대는 봉래에서 내려온 두 동녀가 연꽃술로 태어났다가 군왕의 덕화에 감동하여 가무로써 그 은혜에 보답한다는 내용이다. 위에 의하면 연화대는 탁발위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성호사설』의 내용은 『고려사악지』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한편, 일본의 도가쿠는 100여 종이 넘는 작품명이 전해오고 있다. 이것들은 앞에서 언급한 바, 중국 및 실크로드의 남방계 악무들로 여러 세기에 걸쳐 전래된 것들이다. 다만 시대의 흐름 따라 전승이 단절된 것들이 증가해 13세기 90여 작품이, 17세기에는 대략 40여 작품 정도가 전승되었다고 한다.⁹⁾ 그리고 근대에는 그 수가 더욱 줄어 『메이지선정보(明治撰定譜)』에는 27종만이 수록되기에 이른다. 『메이지선정보』는 1876년과 1888년의 2차에 걸쳐 제정된 일종의 아악보(雅樂譜)이다. 당시 일본은 사회 각 부분에서 진행되던 근대화에 발맞춰 궁내청 악부 또한 재정비하였다. 더불어서 각각의 악가(樂家)

9) 那波利貞, 「蘇莫遮攷」, 『紀元二千六百年記念史学論文集』, 京都大学, 1941, p.448 참조.

를 중심으로 흠어져서 전승되던 궁중악무를 정리·통합해 하나의 규범을 만들게 되는데, 당시의 악보 및 악곡 선정 작업을 통해 탄생한 것이 바로 『메이지선정보』이다. 현재 일본의 궁내청 악부는 이 『메이지선정보』를 기본으로 부가쿠를 전승·연행하고 있다. 『메이지선정보』의 27종 도가쿠 작품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⁰⁾

	작품명	구성	중국 기록
1	소고코 (蘇合香)	반섭조, 대곡, 서 4첩, 파 3첩, 급 5첩, 4 혹은 6인무. 진 후주 작. 또는 천축 아육왕 관련 고사에서 유래.	蘇合香
2	만주라쿠 (萬秋樂)	반섭조, 준대곡, 서 1첩 박자 26, 파 6첩 박자 각 18. 4 혹은 6인무, 불세계곡.	
3	춘노텐 (春鶯囀)	일월조, 대곡, 서 1첩 박자 16, 삼답 2첩 박자 각16. 입파 4첩 박자 각16, 조성 2첩 박자 각16. 급성 2첩 박자 각16, 4 혹은 6인무.	春鶯囀
4	엔부 (振鈴)	삼절 난성조, 주 무왕이 천하평정을 맹세하며 제를 올린 것에서 유래. 초절 천신, 중절 지신, 후절은 선령에 올림.	
5	만자이라쿠 (萬歲樂)	평조, 중곡, 3첩, 4인무, 수 양제 작. 현왕의 치세에 봉황이 날아와 현왕만세를 외침. 봉황의 울음소리를 곡으로 만들어 춤을 입힌 것.	鳥歌萬歲樂
6	산주 (散手)	대식조, 중곡, 서 2첩 박자 각20, 파 7첩 박자 각 20. 1인무.	破陣樂
7	가료빈 (迦陵頻)	일월조, 서 2첩 박자 8, 파 2첩 박자 16, 급 박자 8. 4인 동무. 천축의 기원사 공양 당시 가릉빈이 날아와 춤 춘 모습을 묘사.	
8	간슈 (甘州)	평조, 소곡, 5첩, 박자 각14, 당 현종 작. 간슈는 지명. 4인무, 대나무 채취 시 독사로부터 보호.	甘州
9	다이헤이라쿠 (太平樂)	태식조, 중곡, 파 2첩 박자 20, 급 박자 24, 4인무. 홍문지연 중 향장의 검무를 모방해 만들었다는 설.	太平樂
10	바토 (拔頭)	결식조, 소곡, 파 박자15, 천축악. 당의 후비가 질투로 인해 악귀로 변한 모습을 춤으로 표현했다는 설.	撥頭
11	호쿠테이라쿠 (北庭樂)	일월조, 소곡, 4첩 박자 각14, 4인무, 작자 미상	北庭子

10) 표 및 이하의 도가쿠 해설은 『敎訓抄』(卷1-4) 참조.

	작품명	구성	중국 기록
12	다구라쿠 (打球樂)	태식조. 중곡. 7첩 박자 각11, 4인무. 황제 작. 5월절회 때 타구채를 들고 공을 친.	打毬
13	순테이라쿠 (春庭樂)	쌍조. 중곡. 4첩 박자 각 10, 4인무. 견당사 무생(舞生) 구레노 사네쿠라에 의해 전래.	
14	라료오 (蘭陵王)	일월조. 난서 1첩, 진서. 황서 8첩 박자 8, 입파 2첩 박자 각16, 1인무. 북제 난릉왕 고장공 고사에서 유래.	蘭陵王 大面
15	잇코 (壹鼓)	평조. 2인무. 무원이 북을 목에 걸고 치면서 등장.	
16	아마 (安摩)	일명 음양지진곡(陰陽地鎮曲). 천축악.	
17	가넨 (賀殿)	일월조. 중곡. 파 2첩 박자 각10, 급 4첩 박자 각 20, 4인무. 견당사 후지와라노 사다토시가 일본에 전함.	
18	쇼와라쿠 (承和樂)	일월조. 4첩 박자 각10. 중곡. 4인무.	
19	곤주 (胡飲酒)	일월조. 서 2첩 박자 각7, 파 7첩 박자 각14, 1인무. 반려(班蠡) 작. 서역인의 술에 취한 모습 묘사.	胡醉子
20	고쇼라쿠 (五常樂)	평조. 서 1첩 박자 16, 파 6첩 박자 16, 급 박자 8, 4인무. 당 태종 당시 인·의·예·지·신을 5음에 얻어 작제함.	
21	가토라쿠 (裴頭樂)	평조. 3첩 박자 각12, 4인무. 당의 이덕우 혹은 제의 명제 작. 별을 쫓을 때 연주.	
22	기춘라쿠 (喜春樂)	황중조. 서 2첩 박자 각12, 파 7첩 박자 14.	
23	도리카 (桃李花)	황중조. 중곡. 6첩 박자 각8, 4인무. 3월 3일 곡수의 연에서 연행. 원래 여무	
24	오구라쿠 (央宮樂)	황중조. 4첩 박자 각12. 중곡. 4인무.	
25	세이카이하 (青海波)	반섭조. 2인무. 수궁의 음악.	
26	소마쿠샤 (蘇莫者)	반섭조. 서 2첩 박자 각6, 파 4첩 박자 각 12, 1인무. 바라문승정이 전함.	小幕遮
27	젠조라쿠 (還城樂)	태식조. 중곡. 난서 1첩, 파 2첩 박자 각16. 뱀을 즐기는 서역인의 뱀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 묘사.	

일반적으로 도가쿠 구성은 마치 한국 당악정재가 죽간자 (진)구호, 본

www.kci.go.kr

춤, 죽간자(퇴)구호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서(序)·파(破)·급(急)의 3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작품에 따라서는 일부 전승이 단절되거나 혹은 생략된 경우도 있다. 주로 서에서 무원들이 등장해 파와 급에서 본 춤을 피로한다. 물론 예외도 있어서, 순노텐의 경우 서·파·급이 아닌, 유성(遊聲)·서·삽답(颯踏)·입파(入破)·조성(鳥聲)·급성(急聲)의 6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여타 한국의 당악정재가 죽간자(퇴)구호 후 공연을 마치는 것과는 달리, 오양선의 경우(퇴)구호 후 재차 왕모의 치어(致語)가 이어지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소고코는 대곡으로 소합향이라고 하는 식물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만주라쿠는 준대곡(準大曲)으로, 『교훈초』에 의하면 불교와 관련이 있다. 순노텐은 대곡으로 『악가록(樂家錄)』에는 당 고종이 피꼬리 소리를 듣고 백명달에게 명하여 곡을 짓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¹¹⁾ 엔부(振鋒)는 삼절(三節)로 이루어져 초절은 천신에게, 중절은 지신에게, 마지막 후절은 선령에게 올리는 것이다. 만자이라쿠(萬歲樂)는 수나라 양제가 지은 것으로, 당에서는 현왕의 치세에는 봉황이 날아와 현왕만세를 외친다. 산주(散手)는 원래 황제파진악(皇帝破陣樂), 진왕파진악(秦王破陣樂), 무창파진악(武昌破陣樂), 산수파진악(散手破陣樂), 배러파진악(陪臚破陣樂)으로 구성된 무무(武舞)의 5파진악 중 하나이다. 가료빈(迦陵頻)은 불교의 인면조(人面鳥)인 가릉빈가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간슈(甘州)는 당 현종의 작으로, 작품명은 지명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다이헤이라쿠(太平樂)는 사마천의 사기 중, 항우본기에 기록된 흥문지연을 모티브로 한 악곡으로 무무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바토((拔頭)는 『악가록』에 의하면 맹수에게 부친을 잃은 서역의 호인이 맹수를 찾아 복수하

11) 『樂家錄』(卷之三十二): 續百川學海曰, 春鶯囀, 高宗曉聲律, 晨坐聞鶯聲, 命樂工白明達, 寫之, 遂有此曲.

는 모습을 춤으로 형용한 것이라고 한다.¹²⁾ 호쿠테이라쿠(北庭樂)는 『체원초(體源抄)』에 대국에서는 혼인 날 집의 북면에서 이것을 연주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¹³⁾ 다규라쿠(打球樂)은 타구를 소재로 한 악곡이다. 춘테이라쿠(春庭樂)은 건당사 일행 중 무생 구레노 사네쿠라(久礼真藏)가 전한 것이다. 라로오(蘭陵王)는 난릉왕 고장공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중국에서도 인기 작품이었던 만큼 『교방기』에 그 악곡명이 남아있다. 잇코(壹鼓)는 문자 그대로 북과 관련된 작품이다. 『교훈초』에 타무(打舞)라고 되어 있어 무원이 실제 북을 치며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마(安摩)는 손에 홀을 들고 잡면(雜面)이라고 하는 기하학 문양의 가면을 쓰고 공연한다. 가덴(賀殿)은 문자 그대로 전(殿)의 신축을 축하하는 의미를 지닌 작품이다. 쇼와라쿠(承和樂)는 쇼와연간(承和年間, 834-848)에 생겨나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곤주(胡飲酒)는 서역인의 술에 취한 모습을 형용한 것이다. 고쇼라쿠(五常樂)는 아악의 기본 5음에 인의예지신의 5의를 얻은 것이라고 한다. 가토라쿠(裏頭樂)는 제(齊)의 명제 혹은 당(唐)의 이덕우(李德祐)의 작이라고 한다. 『교훈초』에 의하면 대국에서는 벌을 쫓을 때는 비단 그물 등으로 머리를 싸매었다. 가토라쿠란 여기서 비롯된 명칭인데, 당시 이곡을 통해 벌의 공격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기슌라쿠(喜春樂)는 『교훈초』에 의하면 대국에서는 입춘 때 춘궁전에서 이것을 연주하였다고 한다. 도리카(桃李花)는 원래 여악으로 3월 3일 곡수연(曲水宴)에서 공연되던 것이다. 오구라쿠(央宮樂)는 『교훈초』에 의하면 하야시노 마쿠라(林真倉)가 지었다고 한다. 세이카이하(青海波)는 『교훈초』에 용궁의 악무라고 기록되어 있다. 소마쿠샤(蘇莫者)는 서역계통의 악곡으로 불철 일행이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겐조라쿠(還城樂)는 『교훈초』에 뱀을 즐

12) 『樂家錄』(卷之三十二): 撥頭出西域, 胡人爲猛獸所噬, 其子求獸殺之, 爲此舞.

13) 『體源抄』(三ノ下): 大國之法, 始成夫妻之日於家北面奏此曲, 必人妻入居北面云.

기는 서역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실제로 공연 시에는 뱀 모양을 한 무구를 사용한다.

이렇듯 한국의 당악정재 및 일본의 도가쿠는 각기 다른 소재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그것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고찰, 분석해보면 양측 모두 일부 공통되는 민간 신앙적 색채를 지니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불교라 할 수 있는데, 이하에서는 불교를 포함해 한국의 당악정재와 일본의 도가쿠에 공통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잠재신앙에 대해 고구해 보도록 하겠다.

III. 당악정재와 도가쿠 속 잠재신앙

한국의 당악정재와 일본 도가쿠의 출발 및 근저에 자리하고 있는 일반 및 잠재적 신앙 중 하나는 곡령신앙이다. 시대를 막론하고 농경민들에게 풍년은 곧 행복의 원천이나 다름이 없었다.¹⁴⁾ 이에 사람들은 농경의례를 통해 재해를 막고 풍년을 기원하며 수확의 감사제를 지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곡물을 초월적 존재의 신체나 신령 그 자체로 모시는¹⁵⁾ 이른바 곡령신앙을 숭상하기도 하였다. 임장혁·염희재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곡령신앙은 일찍이 주몽신화에서 발견된다.¹⁶⁾ 주몽의 어머니인 유화부인은 곡모신이다. 그리고 후일 주몽은 그녀로부터 받은 곡물을 가지고 고구려를 건국하게 된다. 일본 또한 마찬가지로이다. 일본의 역사서인 『일본서기(日本書紀)』와 『고사기(古事記)』에는 각각 우카노미타마노미코토(倉稻魂命)와 우카노미타마노카미(宇迦之御魂神)가 등장한다. 『일본서기』에는 이자나기(伊邪那岐)와 이자나미

14) 남근우, 「곡령신앙론」, 『비교민속학』 13, 비교민속학회, 1996, p.543.

15) 한국민속대백과사전(<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17502025.05.01>)

16) 임장혁·염희재, 「정재 오양선에 있어서 중국의 지방문화적 요소」, 『무용역사기록학』 57, 무용역사기록학회, 2020, p.122.

(伊邪那美)의 딸로, 『고사기』에는 스사노오노미코도(素戔鳴尊)와 가무오치히메(神大市比売)의 딸로 등장하는 위의 둘은 이른바 곡령신이다. 특히 『일본서기』의 경우, 우카노미타마노미코토는 아자나기와 이자나미가 매우 허기가 졌을 때 태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¹⁷⁾ 물론 중국의 경우는 훨씬 그 이전부터 곡령신앙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나라의 사직제사(社稷祭)로, 사(社)가 토지신을 의미한다면 직(稷)은 곧 곡물의 신을 의미한다.¹⁸⁾ 이렇듯 곡령신앙은 씨를 뿌리고 성장시키며 수확물을 거두는 농경사회 속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난 것임에 틀림없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신앙이 궁중악무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당악정제와 도가쿠 중, 곡령신앙이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는 오양선과 소마쿠샤가 있다. 오양선과 관련해 앞에서 인용한 『태평환우기(太平寰宇記)』(권 157)에는 “『속남월지(續南越志)』에 의하면 오래된 이야기에 다섯 신선이 오색의 양을 타고 육수거(六穗租)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지금 오양성이라고 부르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¹⁹⁾ 또한 『태평어람(太平御覽)』(권 185)에는 “광주 청사(廳事)의 들보에 오양상(五羊像)이 그려져 있고, 오곡을 담은 주머니를 만들어 오양상에 매달았다”고 기록되어 있다.²⁰⁾ 이상의 두 기록에서 공통되는 것은 다섯 마리의 양과 곡물인데, 문자 그대로 육수거란 한 가지에 여섯 개나 이삭이 달려 있는 기장을 말한다. 이에 임장혁·염희재는 연구를 통해 이상의 기록은 일종의 ‘곡물기원담’으로, 결국 오양선

17) 『日本書紀』(卷第1 四神出生): 又飢時生兒, 號倉稻魂命.

18) 조우연, 「고구려의 사직제사」, 『동아시아고대학』 29, 동아시아고대학회, 2012, p.200.

19) 『太平寰宇記』(卷157 廣州條): 五羊城按續南越志云, 舊說有五仙人騎五色羊執六穗租而至, 至今呼五羊城是也.

20) 『太平御覽』(卷一八五, 廣州記): 州厅事梁上画五羊像, 又作五谷囊, 随像悬之.

은 잠재적 곡령신앙의 범주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논한 바 있다.²¹⁾ 한편, 소마쿠샤는 『악고(樂考)』에 “당나라 시대의 이른바 서호혼탈무(西胡渾脫舞)이다. 소막차(蘇莫遮)는 고창국(高昌國) 여자의 모자 이름이다.”²²⁾라고 기록되어 있다. 중국 『교방기』에 기록되어 있는 소막차는 북주시기(557-581) 서역에서 전래된 것으로, 서역에서 행해지던 곁한발수(乞寒潑水)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 구자나 고창, 강국 등에서는 동절기에 서로에게 물을 뿌리며 추위를 구하고 사악한 것이 씻겨나가기를 기원하는 풍습이 있었다.²³⁾ 한겨울에 차가운 물을 뿌리며 추위를 구하는 것은 강추위가 큰 눈을 몰고 와 경작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위의 지역들은 매우 건조한 곳으로 강수량의 대부분은 겨울에 집중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추위와 적설, 그리고 풍작은 하나의 끈처럼 이어져 있었고, 그런 만큼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는 곧 곡물의 다른 형상체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소마쿠샤는 바로 이상과 같은 중국의 소막차로부터 유래한 것인데, 이렇게 볼 때 그것 또한 곡물의 신성성과 더불어 풍작을 기원하는 곡령신앙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두 번째는 용신신앙이다. 일반적으로 용은 풍운조화를 일으키고 비를 내리며 바다를 관장하는 것²⁴⁾으로 여겨져 왔다. 풍운 내지는 비가 농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용신신앙은 한중일의 동아시아에 일찍부터 뿌리를 내렸다. 한국의 경우, 일례로 『삼국유사』 「기이」(제1) 편에 의하면 신라의 시조

21) 임장혁·염희재, 「정재 오양선에 있어서 중국의 지방문화적 요소」, 『무용역사기록학』 57, 무용역사기록학회, 2020. pp.110~121.

22) 『樂考』: 蘇莫者 (中略)唐の時所謂西胡渾脫舞也。蘇莫遮は高昌國の女子の帽子の名なり。

23) 중국 〈소막차〉에 관하여는 여승환, 「발한호희(潑寒胡戲)의 유래와 당대(唐代) 금지 상소(上疏)를 통해 살펴본 연출 상황 고찰」, 『중국문학연구』 49, 한국중문학회, 2012, pp.3~26; 김광영, 「〈소막차〉연구」, 『중국어문학지』 42, 중국어문학회, 2013, pp.13~35.

2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2022.05.01)

혁거세왕의 부인 알영은 계룡으로부터 태어난다.²⁵⁾ 또한 「기이」(제2)의 백제 조에는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와 결혼해 후일 무왕이 되는 서동요의 출생 또한 용과 관련되어 있다고 기록돼 있다.²⁶⁾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우, 『일본서기』와 『고사기』에 의하면 초대 진무천황(神武天皇)의 조모 도요타마히메(豊玉姬)는 해신(海神)의 딸이다.²⁷⁾ 또한 『일본서기』 사이메이천황(齊明天皇) 조(655년)에는 천황이 즉위한 해 5월, 용에 올라탄 사람이 하늘을 나는 일이 있었다고도 기록되어 있다.²⁸⁾ 물론 중국의 용신신앙은 한일에 비해 훨씬 빠르다. 일찍이 상나라(BC. 1600-1046년경)의 주조물 등에 이미 용의 형상이 묘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창조 신화에도 천룡과 복장룡(伏藏龍), 지룡, 신룡의 4가지 유형이 등장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용신신앙은 한중일의 동아시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신앙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는데, 궁중악무에도 이것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한국의 당악정재 중 용신신앙의 잠재적 흔적을 살필 수 있는 것은 바로 포구락이다. 앞에서 언급한 『성호사설(星湖僊說)』(제15권, 人事門)에는 이신언이 꿈에 수궁에 들어가 궁녀들이 포구하는 것을 구경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²⁹⁾ 여기서 주목해야만 하는 것은 이신언이 수궁에 갔다는 것인데, 수궁은 곧 용왕이 사는 곳을 의미한다. 『악학궤범』(제8권) 「당악정재의물도설」에 의

25) 『三國遺事』(卷第一, 紀異第一): 是日沙梁里闕英井, 一作娥利英井邊, 有雞龍現, 而左脇誕生童女, 一云龍現死, 而剖其腹得之.

26) 『三國遺事』(卷第一, 紀異第二): 第三十武王名璋, 母寡居築室於京師南池邊, 池龍交通而生, 小名薯童.

27) 『日本書紀』(卷第二, 神代下): 時海神迎拜延入, 慇懃奉慰, 因以女豊玉姬妻之.

28) 『日本書紀』(卷第二六): 元年春正月壬申朔甲戌. 皇祖母尊即天皇位於飛鳥板蓋宮. 夏五月庚午朔. 空中有乘龍者. 貌似唐人. 著青油笠. 而自葛城嶺馳隱膽駒山. 及至午時. 從於住吉松嶺之上. 西向馳去.

29) 『星湖僊說』(第十五卷, 人事門): 海州士人李慎言, 夢至一處水殿中觀宮女戲毬, 山陽蔡純為之傳叙其事甚詳, 有拋毬曲十餘闕. 포구락에 얽힌 이신언 고사는 『林下筆記』(第三十八, 海東樂府)에도 기록되어 있다.

하면 포구락에 사용되는 포구문은 용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또한 공연에 사용되는 채구는 용알이라고 한다. 더욱이 퇴구호에서는 반주음악으로 수롱음을 사용한다. 오양선과 같은 다른 종목에 비해 포구락의 잠재신앙이 두드러지지 않는 것은 그것이 지니는 강한 유희성 때문인데, 어쨌든 포구락은 용과의 관련성 속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도가쿠 중 용신신앙과 관련된 것으로는 세이카이하 외에 아마 등이 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세이카이하는 문자 그대로 푸른 바다 물결이라는 의미로, 『교훈초』에 ‘수궁의 음악’이라 기록되어 있다. 『교훈초』(제1권)에 의하면 대한발 당시, 가스가대사(春日大社)에서는 세이카이하를 봉납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세이카이하를 비와 관련한 일종의 징표로 삼았기 때문인데, 용신은 오래전부터 비를 관장하는 신으로 여겨져 왔다. 아마 또한 마찬가지로 용궁과 관련된 고사가 기록되어 있다. 『악가록』에 의하면 옛날 용궁의 용녀가 보옥(寶玉)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용녀는 참새를 사랑하였다. 이에 새의 깃털을 모아 참새의 형상을 만들어 쓰고 울음소리를 흉내 내자 용궁의 문이 열려 보옥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 아마는 이때의 일을 춤으로 만든 것인데 공연에 쓰이는 장면은 곧 참새의 모습을 본 뜬 것이라고 한다.³⁰⁾ 어쨌든 이상의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용에 신격을 부여해 인간세계와는 다른 특별한 영역에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은 불교이다. 동아시아에서 불교는 오래전부터 각 사회에 밀착해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그런 만큼, 의식주는 물론 문화적으로도 많은 관련 흔적들이 남아있다. 궁중악무 또한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당악정재 중, 불교와의 관련성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연화대이다. 알려진 바, 연화대의 주요 모티프는 연화와 동녀이다. 그런데 이 중 연화는 불교의 상징과도 같은 꽃이다.

30) 『樂家錄』(卷之三十一): 昔龍宮に宝玉重之, 或雖欲取之無其術傳謂此龍女愛雀, 因集鳥毛作雀頭著之, 而學雀轉至于彼處, 則開門戶令人入于龍室, 遂而後盜彼寶玉去. 摸此時之象作此曲云云. 今藏面者摸雀象云云.

편무영의 연구에 의하면 싯다르타의 출생 시, 주위의 연꽃이 활짝 피어 마야 부인의 옆구리를 통해 태어난 싯다르타가 연꽃에 올라섰고 이로 인해 연화는 곧 싯다르타의 탄생을 상징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한다.³¹⁾ 동녀도 마찬가지로이다. 원래 불교에서 아들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열반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주체적이고 가능성이 있는 인격체로 여겨진다.³²⁾ 그리고 이러한 아동관을 반증하듯 『대보적경(大寶積經)』(第九十八)에 8살의 묘혜동녀가 여래의 존칭을 받는 등, 불심과 관련된 신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³³⁾ 이에 송지원은 연화대의 동녀에 관해 꽃에서 동녀가 나오는 이야기는 불교와 관련하여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설정이었다고 논한 바 있다.³⁴⁾ 따라서 연화대는 잠재적 불교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일본 도가쿠 중, 불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는 만주라쿠와 가료빈이 있다. 만주라쿠는 교훈초에 불세계곡이라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인지요록(仁智要錄)』에는 『남궁적보(南宮笛譜)』를 인용해 ‘자존악(慈尊樂)이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다.³⁵⁾ 자존(慈尊)이란 미륵보살을 말한다. 만주라쿠의 유래에 관해 자세히 기록한 『악가록』에 의하면 제불(諸佛)이 보리수 아래서 이 곡을 연주하며 득도하였다. 그래서 악곡의 이름을 ‘보제수하악(菩提樹下樂)’이라 하였다. 석가여래는 미륵보살에게 이 곡을 전하였는데 미륵보살 입멸 후, 이 곡을 전승하는 이가 없이 100년이 흘렀다. 미륵보살은 이것을 애석

31) 편무영, 「생불화를 통해 본 무불습합론」, 『비교민속학』 13, 비교민속학회, 1996, pp.576~586 참조.

32) 불교의 아동관에 관해서는 황옥자, 「불교와 아동교육」, 『종교교육학연구』 30, 한국종교교육학회, 2009, pp.1~29, 임명연, 「한국 민담에 나타난 아동관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5, pp.12~13 참조.

33) 송성수 옮김, 『대보적경5』, 동국대학교부설 동국역경원, 1994, pp.37~45, 참조.

34) 송지원, 「조선시대 궁중학무의 연행양상 연구」, 『공연문화연구』 15, 공연문화학회, 2007, p.179 참조.

35) 『仁智要錄』(卷第九上 般涉調曲): 南宮笛譜云, 又號慈尊樂.

하게 생각해 인간 세상에 전하였고, 이것을 들으면 악에서 나와 선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한다.³⁶⁾ 계속해서 가료빈의 소재가 된 가릉빈가는 『아미타경(阿彌陀經)』에 나오는 상상의 새로 인두조신(人頭鳥身)의 형상을 하고 있다. 아름답으면서도 매우 묘한 소리를 내기 때문에 묘음조(妙音鳥)나 묘성조 등으로 불리며 부처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새로 여겨지고 있다. 즉, 연꽃과 동녀를 모티브로 한 당악정재의 연화대, 그리고 자존과 가릉빈가를 소재로 한 도가쿠의 만주라쿠 및 가료빈을 통해 불교의 흔적을 살필 수 있는 것이다.

IV. 당악정재와 도가쿠의 잠재신앙 발현 양상

당악정재와 도가쿠는 한일의 궁중악무로서 중국에서 전래되었다는 점 외에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당악정재가 중국으로부터 고려에 전래된 것은 11세기이며, 일본 도가쿠가 전래된 것은 빠르면 5~9세기 사이이다. 따라서 양쪽 모두 천년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런 만큼 당악정재와 도가쿠에는 악무 출현 초기의 색채가 비교적 많이 남아있다. 앞에서 살핀 곡령신앙과 용신신앙, 그리고 불교 등의 잠재신앙은 그러한 색채의 연장선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잠재적 신앙은 실제로 각국별 작품에 어떤 형태로 발현된 것일까? 본 장에서는 이점에 관해 간략히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한국 당악정재이다. 당악정재의 경우는 부언할 필요도 없이 가장 중요한 창사 외에 무구 등을 통해 잠재신앙을 구현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곡령신앙이 바탕이 된 오양선의 경우, 『고려사 악지』에 실린 창사 중, 「벽연

36) 『樂家錄』(卷之三十一): 彼土諸佛出世時, 於菩提樹下奏此曲, 而遂正覺因名之菩提樹下樂也. 積尊時屬之慈尊, 慈尊入滅後此曲不傳凡百年也, 慈尊惜之降現傳之人間, 爾來五天普傳之. 聽此曲則離惡趣生善處蒙無邊利益云云.

농효사(碧煙籠曉詞)에는 ‘완연공지가화서(宛然共指嘉禾瑞)’라는 구절이 삽입되어 있다. 여기서 ‘가화(嘉禾)’란 열매가 풍성히 붙은 커다란 벼이삭으로, 경사스러운 징조로 이해되고 있다. 벼이삭을 통한 경사는 곧 풍년이나 태평성대 등으로 이어진다. 마찬가지로 잠재적 불교가 내재된 연화대에는 ‘연방화출영태(蓮房化出英英態)’라는 구절이 사용되고 있다. ‘연방화출’은 연꽃에서 화하여 세상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원래 불교에는 ‘연화화생(蓮華化生)’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연꽃에서 만물이 신비롭게 탄생한다는 불교의 기본 사상을 담고 있다. 이미지 상, 연화대의 ‘연방화출’은 불교의 ‘연화화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용신신앙이 잠재되어 있는 포구락의 경우는 무구를 통해 그것을 구현하고 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포구락은 포구문을 설치하고 무원들이 그것에 채구를 던져 통과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포구문과 채구는 포구락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불가결한 것들이다. 그런데 포구문

은 화려한 용문양이 새겨져 있고, 채구는 일명 용알이라고 한다. 이것은 포구락의 발생 모티브인 이신언의 꿈 속 수궁을 포구문과 채구를 통해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한편, 일본 도가쿠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잠재신앙을 발현하고 있다. 첫째는 가면을 포함한 의상이며, 둘째는 명칭이다. 먼저 의상을 통해 잠재신앙을 표출하고 있는 작품은 곡령신앙의 소마쿠샤, 용신신앙의 세이카이하와 아마, 불교의 가료빈이다. 소마쿠



『舞樂圖』〈青海波〉



『舞樂圖』〈安摩〉



『舞樂圖』〈迦陵頻〉

샤는 무원이 도롱이를 걸치고 공연을 한다. 도롱이는 비를 막는 일종의 비옷이다. 소마쿠샤에서 도롱이를 입는 것은 그것의 출발과 관련이 깊다. 소마쿠샤는 서로에게 물을 뿌리며 추위를 구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도롱이는 소마쿠샤의 출발과 그것에 함축된 의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세이카이하, 가료빈, 아마 또한 의상을 통해 잠재적 신앙을 보여준다. 세이카이하는 해당 작품에만 사용하는 특별의상을 입는다. 시타가사네(下襲)라고 하여 속바탕이 되는 옷을 입은 후 그 위에 호(袍)를 걸쳐 입는데, 이 때 시타가사네의 한쪽 소매가 드러나도록 입는다. 그런데 위의 그림에 보이는 바, 시타가사네에는 물결 문양, 호에는 새가 그려져 있다. 이것은 바다, 파도, 바다 위의 새 등을 묘사한 것으로 수궁 음악의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가료빈은 실제 가릉빈의 형상을 본뜬 날개옷을 입고

공연한다. 여기에 동발을 들고 소리를 내면서 공연을 한다. 동발의 소리는 가룽빈의 울음소리를 의미한다. 아마의 경우, 기하학 문양의 가면을 착용한다. 이것은 참새를 형용한 것이라고 하는데, 참새는 『악가록』에 기록된 용궁과 용녀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의 명칭을 통해 잠재신앙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만주라쿠이다. 만주라쿠는 일명 ‘자존악(慈尊樂)’, ‘자존만수악(慈尊萬壽樂)’, ‘자존만추악(慈尊萬秋樂)’ 등으로 불린다. 이러한 이칭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자존은 미륵보살을 의미한다.

이렇듯 한국 당악정재의 경우, 잠재적 신앙은 창사와 무구 등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반면, 일본 도가쿠는 의상과 무구, 이칭 등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당악정재와는 달리 도가쿠에는 창사가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 잠재신앙의 표출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상과 같은 한일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각각의 궁중악무를 이해하고 또한 특수성을 도출해 내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V. 나오며

이상으로 한국 당악정재와 일본 도가쿠의 잠재신앙 및 그것의 발현 양상에 관해 살펴보았다. 고려시대에 전래된 한국의 당악은 총 5종이다. 이에 반해 빠르면 5~9세기에 걸쳐 전래된 도가쿠는 100여 작품이 넘는다. 그러나 전승이 오랜 세월을 거치며 일부 전승이 단절되어, 메이지 시대의 『메이지선정보』에는 27개 작품의 무보(舞譜)가 실려 있다.

당악정재와 도가쿠에는 공통적으로 잠재신앙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것은 당악정재와 도가쿠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악무 출현 초기의 색채가 비교적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당악정재와 도가쿠에서 살필 수 있는 잠재신앙은 곡령신앙과 용신신앙, 그리고 불교 등이다. 먼저 곡령신앙을 바탕으로 하

고 있는 당악정재에는 오양선이 있다. 그리고 도가쿠에는 소마쿠샤가 있다. 오양선은 오색의 양을 타고 내려온 신선이 인간에게 곡물을 전해준다는 고사를 주요 모티브로 하고 있다. 소마쿠샤는 절한발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소마쿠샤에서 추위는 많은 양의 눈으로 이어지며 눈은 다시 곡식의 풍요로 이어진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는 곧 곡식의 낱알로 은유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용신신앙은 당악정재의 포구락과 도가쿠의 세이카이하, 아마가 있다. 당악정재의 포구락과 도가쿠의 세이카이하, 아마는 용궁 내지는 수궁의 고사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끝으로 불교와의 관련성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은 당악정재의 연화대와 도가쿠의 만주라쿠, 가료빈이 있다. 연화대는 불교의 상징과도 같은 연화를 소재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교에서 익숙한 동녀가 출현하고 있다. 만주라쿠는 달리 ‘자존악(慈尊樂)’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제불(諸佛)이 보리수 아래서 이 곡을 연주하며 득도하였다는 기록이 전한다. 가료빈은 『아미타경』의 가릉빈가를 소재로 한 것으로 잠재적 불교색채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한편, 이상과 같은 잠재신앙은 당악정재의 경우 창사와 무구, 곡명으로, 도가쿠의 경우는 의상과 이칭으로 발현되고 있다. 오양선과 연화대에는 각각 ‘宛然共指嘉禾瑞(완연공지가화서)’, ‘蓮房化出英英態(연방화출영영태)’라는 구절의 창사가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포구락에는 용문양의 포구문과 용알이라고 하는 채구가 사용되고 있으며, 수룡음이라는 음악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도가쿠는 세이카이하와 소마쿠샤, 가료빈, 아마는 의상의 무늬나 모양 혹은 가면을 통해 잠재신앙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당악정재와는 달리 도가쿠에는 창사가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궁중악무는 당대 최고의 예술로서 극도의 정제된 예술 세계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의 원초적 삶과 정서를 바탕으로 한 잠재적 신

양 체계가 자리하고 있다. 당악정재와 도가쿠에 내재한 잠재신앙은 양 지역의 악무가 단순한 공연예술을 넘어 신앙 및 주술, 자연관 등에 기반한 동아시아적 문화 원형을 공유하는 예술적 실체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은 서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잠재신앙이라는 개념을 매개로 한 한일 연구가 고대 악무문화 교류의 구조와 의미를 재구성하는 데 유효한 해석틀이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본 연구가 한일의 궁중악무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또한 그것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日本空間)

논문 투고일 : 2025년 10월 29일

논문 심사일 : 2025년 11월 6일

게재 확정일 : 2025년 11월 16일

참고문헌

『高麗史 樂志』

『三國遺事』

『星湖僊說』

『樂學軌範』

『本草綱目』

『太平御覽』

『太平寰宇記』

『古事記』

『教訓抄』

『舞樂圖』

『樂家錄』

『仁智要錄』

『日本書紀』

『體源抄』

성경린, 『한국전통무용』, 일지사, 1995.

송성수 옮김, 『대보적경5』, 동국대학교부설 동국역경원, 1994.

河竹繁俊, 『日本演劇全史』, 岩波書店, 1968.

김광영, 「〈소막차〉연구」, 『중국어문학지』 42, 중국어문화회, 2013.

남근우, 「곡령신양론」, 『비교민속학』 13, 비교민속학회, 1996.

송지원, 「조선시대 궁중학무의 연행양상 연구」, 『공연문화연구』 15, 공연문화학회, 2007.

- 신태영, 「여, 송 악무 교류와 당악정재의 도교적 성격」, 『민족무용』 19, 세계민족무용연구소, 2015.
- 여승환, 「발한호희(潑寒胡戲)의 유래와 당대(唐代) 금지 상소(上疏)를 통해 살펴본 연출 상황 고찰」, 『중국문학연구』 49, 한국중문학회, 2012.
- 이정노, 「고려중기 당악정재의 유입 배경과 도교적 양상」, 『한국체육학회지』 59-1, 2020.
- 이정인 외, 「한·중·일 궁중악무의 전파·수용·변용에 관한 연구 - <옥수후정화(玉樹後庭花)>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연구』 31,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연구소, 2021.
- 임명연, 「한국 민담에 나타난 아동관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5.
- 임장혁·염희재, 「정재 오양선에 있어서 중국의 지방문화적 요소」, 『무용역사기록학』 57, 무용역사기록학회, 2020.
- 임장혁·이사빈, 「연화대무의 민속학적 연구」, 『무용역사기록학』 22, 한국무용기록학회, 2011.
- 조우연, 「고구려의 사직제사」, 『동아시아고대학』 29, 동아시아고대학회, 2012.
- 최진아, 「조선시기 唐樂呈才에 반영된 ‘西王母’의 문화적 의미」, 『中國小說論叢』 41, 한국중국소설학회, 2011.
- 편무영, 「생불화를 통해 본 무불습합론」, 『비교민속학』 13, 비교민속학회, 1996.
- 황옥자, 「불교와 아동교육」, 『종교교육학연구』 30, 한국종교교육학회, 2009.
- 小野功竜, 「供養舞樂と法会形式の変遷に就いて」, 『相愛女子大学・相愛女子短期大学研究論集』, 相愛女子大学・相愛女子短期大学, 1966.
- _____, 「雅樂と法会」, 『日本の美術』, 至文堂, 1981.

那波利貞, 「蘇莫遮攷」, 『紀元二千六百年記念史学論文集』, 京都大学, 1941.
樋口昭, 「舞樂〈迦陵頻〉に託す浄土への憧憬」, 『古代文化』 52-11, 古代学協会
2000.

由井恭子, 「『體源鈔』における万秋楽 : 豊原統秋の法華信仰との関わりから」,
『仏教文化学会紀要』 27, 仏教文化学会, 2019.

동양고전종합 DB 홈페이지. <http://db.cyberseodang.or.kr>. (검색일:
2022.05.01).

한국사 DB 홈페이지. <https://db.history.go.kr>. (검색일: 2022.05.0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검색일:
2022.05.01.).

國學迷 홈페이지. <http://www.guoxuemi.com>. (검색일: 2022.05.01.).

Abstract

A study on Korean and Japanese Court Dance - Focusing on the latent faith of Dangak Jeongjae(唐樂呈才) and Togaku(唐樂)

Park Taequ, Lim Mehee

Korean Jeongjae(呈才) is largely divided into Dangak(唐樂) and Hyangak(鄉樂). Bugaku(舞樂) of Japan consists of Togaku(唐樂) and Komagaku(高麗樂). What is interesting is that the Korean and Japanese court dance commonly include things that came from China.

Besides, there are some traces of the latent faith in both Dangak and Togaku. The latent faiths which can be found in Dangak and Togaku are the worship of grains, faith in dragon god and Buddhism, etc. First, there are Oyangseon(五羊仙) of Dangak and Somakusha(蘇莫者) of Togaku, which are based on the worship of grains. Second, with having the belief in the dragon god, there are Pogurak(拋毬樂) of Dangak, and Seigaiha(青海波) and Ama(安摩) of Togaku. Buddhism can be found in Yeonhwadae(蓮花臺) of Dangak and Manjuraku(萬秋樂), Karyoubin(迦陵頻) of Togaku.

Dangak Jeongjae revealed the latent faiths with lyrics, dancing tools, and the titles of songs, and Togaku was expressed with costumes and nicknames. Court Dance is considered as the greatest art of the time and extremely refined art. However, behind the scenes lies the latent religious system based on human primitive lives and emotions. This study will be helpful in understanding the dance of the royal court of Korea and Japan.

www.kci.go.kr

key words

Dangak Jeongjae, Bugaku, Togaku,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Japan, latent faith